

국내기업의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M&A 지원 방안

김경훈 연구위원(khkim1206@korcham.net)

M&A는 첨단기술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동 분야에서 해외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어 최근 그 역할과 중요성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어려워진 투자환경으로 국내외 M&A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M&A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첨단기술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해외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 효과가 높은 outbound M&A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은 해외 M&A에 익숙치 않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M&A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 선정에 대한 유연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투자자금의 위축에 따른 M&A 시장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M&A 관련 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

1. 배경

□ M&A는 짧은 시간 안에 기업 및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 하나임

- M&A는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수행하고 신성장 산업으로의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달성
 -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부실 자산을 청산하고 기업의 성장성을 확대
 - 이종기업간 결합으로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입이 가능

- 기업의 자체 내부 역량 개발을 통한 성장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반면 M&A는 짧은 시간 안에 기업의 성장성을 키울 수 있음
- 이처럼 M&A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동시에 산업구조 재편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성을 제고

□ 특히, 최근 M&A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해외와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확대

* 본 자료는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ustainable Growth Initiative)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첨단산업 관련 기술력과 자원 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현안

□ 그러나, 최근 M&A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M&A를 통한 경제성장 제고 효과가 위축될 우려

□ 이에 본 보고서는 M&A를 통해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국내경제의 성장성 강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우선 국내외 M&A 현황과 특징을 살펴봄
- 국내기업의 첨단기술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수 있는 M&A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2. 국내외 M&A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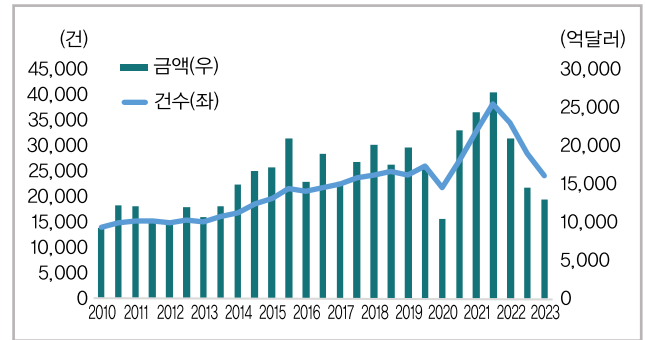
(1) 글로벌 동향

□ 글로벌 M&A 시장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반도체,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사업 중심의 투자가 지속

□ 전세계 M&A 거래의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거래금액의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남

- 2023년 상반기 기준 거래금액(1.3조달러)과 거래건수(2.4만개)는 2022년 상반기 대비 39.5%, 30.2% 감소
 - 2022년 거래금액(3.5조달러)과 거래건수는(6.3만개)로 2021년 대비 각각, 31.3%, 11.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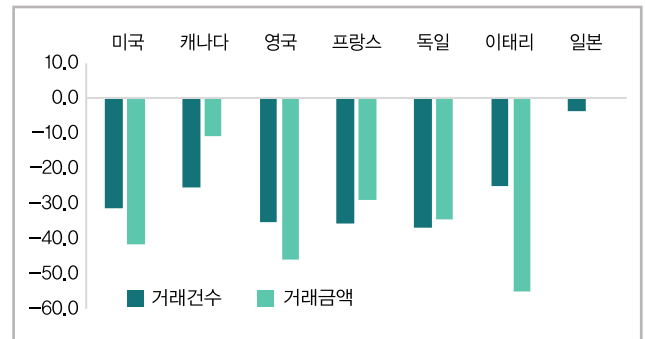
[그림 1] 글로벌 총 M&A 추이



주: 미결 및 완료 기준
자료: Bloomberg

- 2023년 상반기 G7 국가별 M&A 거래금액은 이태리(-54.9%), 영국(-45.7%), 미국(-41.3%) 순으로 크게 감소
 - 일본은 M&A 거래금액이 전년동기대비 0.4% 소폭 증가

[그림2] 주요국 M&A 거래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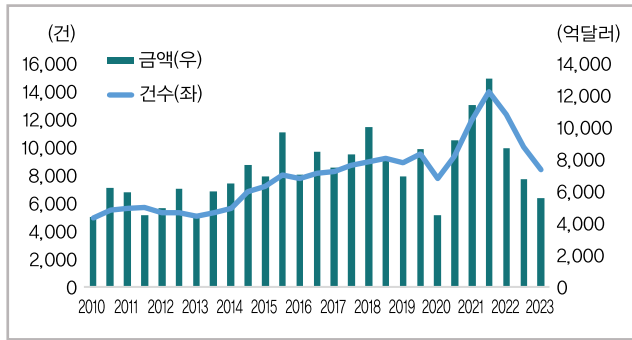
주: 미결 및 완료 기준
자료: Bloomberg

□ 전세계 국경간(cross-border) M&A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임

- 2023년 상반기 거래금액(5천5백만달러)과 거래건수(8천4백개)는 2022년 상반기 대비 각각 36.4%, 31.5% 감소
 - 2022년 거래금액(1.5조달러)과 거래건수(2.2만개)는 전년대비 각각 37.4%, 13.6% 감소

1) 본 보고서의 M&A 자료는 Bloomberg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공시일 기준 미결 및 완료된 거래로 M&A, 지분투자, 조인트벤처에 해당

[그림3] 글로벌 cross-border M&A 추이



주: 미결 및 완료 기준
자료: Bloomberg

○ 한편, 반도체, 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한 그린필드형* 해외투자는 소폭 증가

* 생산기지 및 지점 설립 목적의 해외투자로 투자 지역의 용지를 직접 매입하고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투자

- 신재생에너지와 반도체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대형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

- 2022년 그린필드형 투자건수는 1만6천개로 전년대비 6% 감소했으나 투자금액은 1조8백만달러로 전년대비 54% 증가

[표 1] 2022년 글로벌 직접투자 상위 프로젝트

투자 대상국	분야	기업명	투자국	금액 (억달러)
미국	반도체	TSMC	대만	280
남아공	부동산	URB	UAE	200
인도	반도체	Vedanta Resources	영국	195
아일랜드	반도체	Intel	미국	133
이집트	신재생에너지	ACME Group	인도	130
영국	신재생에너지(풍력)	Marubeni	일본	122
이집트	신재생에너지	Globeleq Generation	영국	110
이집트	신재생에너지(풍력)	Mubadala Investment	UAE	108
모로코	신재생에너지	Eren Group	룩셈부르크	103
이집트	신재생에너지	Fortescue Metal Group	호주	100

자료 : UNCT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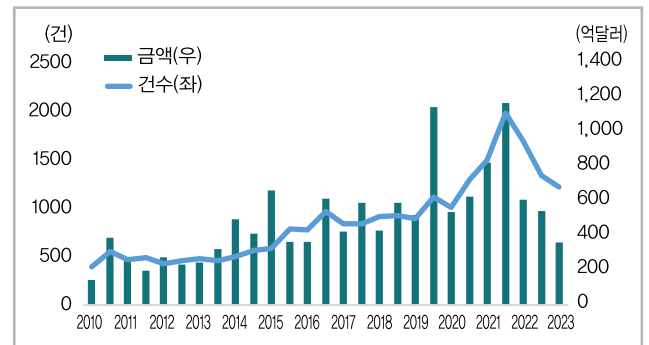
(2) 우리나라의 M&A 현황

□ M&A 거래는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상승 및 안전자산 선호와 경제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위축으로 축소되는 모습

○ 2023년 상반기 거래금액(350억달러)과 거래건수(1천2백개)는 2022년 상반기 대비 각각 41.0%, 29.2% 감소

- 2022년 거래금액(거래건수)는 1천2백만 달러(3천건)로 2021년 대비 각각 42.1%, 12.8% 축소

[그림4] 국내 총 M&A 추이



주: 미결 및 완료 기준
자료: Bloomberg

□ 기술부문(반도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기업에 대한 인수 비중이 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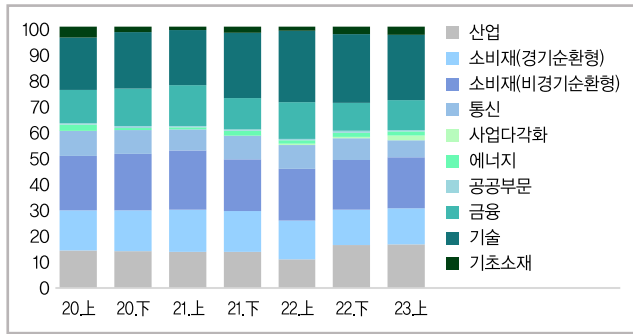
○ 2023년 상반기 기준 기술부문 대상 인수 건수의 비중이 전체의 25.2% 차지

- 비경기순환형 소비재 부문에 대한 인수비중이 19.7%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

* 비경기순환형 소비재에서는 헬스케어 관련 산업 부문의 M&A가 활발하게 진행

* 산업부문에서는 환경기술분야 관련 M&A가 활발하게 진행

[그림5] 인수대상 섹터별 거래건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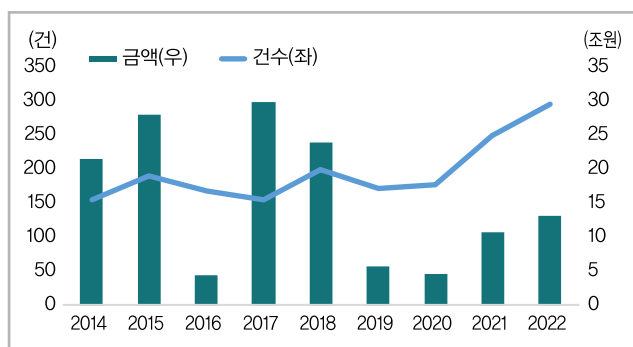


주: 미결 및 완료 기준
자료: Bloomberg

□ 다만, 기업의 신규성장 동력 확보로 해석되는 비계열사간 기업결합은 축소된 반면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계열사간 구조조정 관련 기업결합은 증가

- 2022년 계열사간 기업결합은 거래금액은 13.1조원으로 전년대비 21.3% 증가하였고, 거래건수도 296건으로 전년대비 18.9% 증가
 - 금리인상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지자 계열사간 구조조정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

[그림 6] 계열사간 기업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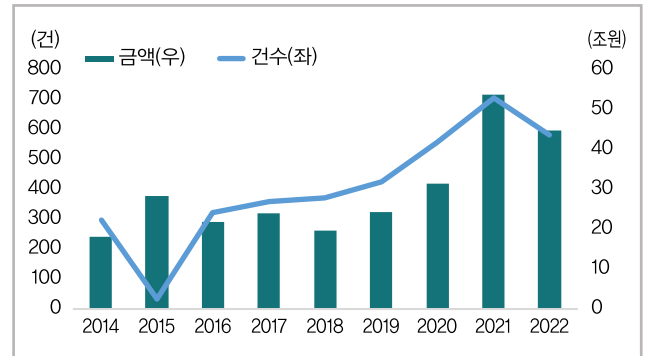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비계열사간 기업결합의 경우 거래금액은 44.7조원으로 전년대비 16.8% 감소하고, 거래건수는 580건으로 전년대비 17.7% 감소

- 최근 비계열사간 기업결합 건수의 축소는 어려워진 환경으로 기업들의 보수적 경영 경향이 커진 것을 반영

[그림 7] 비계열사간 기업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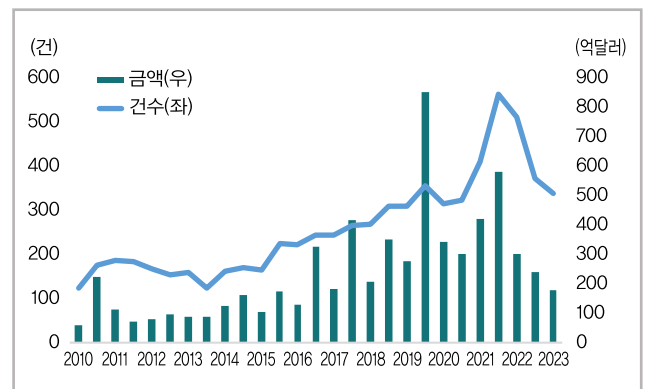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국내의 cross-border M&A 거래규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위축

- 2023년 상반기 거래금액(170억달러)과 거래건수는(3백개)로 2022년 상반기 대비 각각 41.9%, 33.3% 감소
 - 2022년 거래금액(540억달러)과 거래건수(880개)도 2021년 대비 각각 46.0%, 12.9% 감소

[그림 8] 국내 cross-border M&A 추이



주: 미결 및 완료 기준
자료: Bloomberg

- 위축된 거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내기업들은 이차전지, 바이오, 친환경기술 등 신성장 분야에서 해외 M&A 추진
 - 전기차의 안정적 생산 및 시장 확보를 위해 배터리 생산업체와 완성차 생산업체간 합작회사 설립
- * LG에너지솔루션은 일본 혼다와 미국에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
- 바이오, 폐기물 처리기술 관련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도 활발
- * 삼성바이오직스는 미국 바이오젠으로부터 삼성 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전량 구매
- * SK에코플랜트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재사용사업 확장을 위해 전기전자 폐기물 전문기업인 TES를 인수

[표2] 국내기업의 주요 cross-border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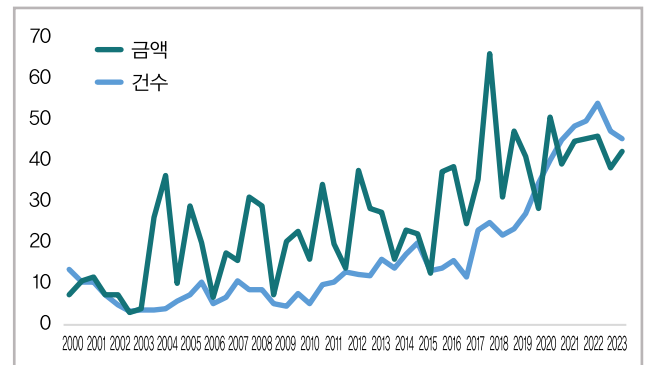
분야	투자대상국	인수자	거래대상	금액(조원)
배터리	미국	LG 에너지솔루션	혼다	5.0
바이오	미국	삼성 바이오로직	삼성바이오 에피스	2.7
바이오	미국	SD 바이오센스	메리디언	2.0
플랫폼	미국	네이버	포쉬마크	1.5
전기전자 폐기물	싱가포르	SK 에코플랜트	TES	1.2
에너지	호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세넥스	0.8
디스플레이	미국	삼성전자	이매진	0.3

자료: 더벨, Bloomberg, 언론보도 등

□ M&A 시장에서 사모펀드가 주요한 플레이어로 안착했으나, 2022년 하반기 부터 금융투자환경 악화로 사모펀드의 참여비중이 축소세로 전환

- 총 거래건수에서 사모펀드가 참여하는 거래 건수 비중이 2016년 하반기 11.6%에서 2022년 상반기 54.7%까지 크게 증가
- 이후 증가세가 줄어들어 2023 상반기 45.7% 까지 비중이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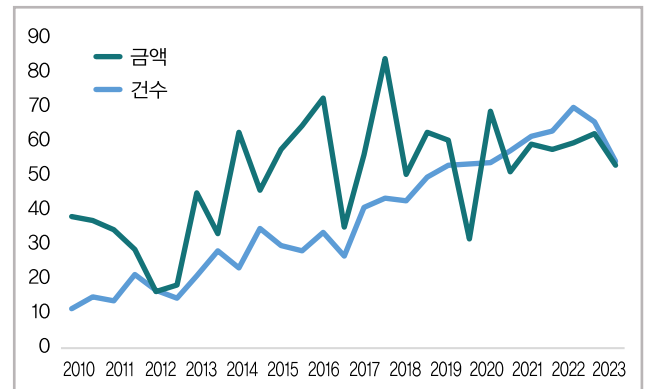
[그림 9] 국내 M&A 거래 중 사모펀드 참여 비중 (단위: %)



주: 미결 및 완료 기준, 자료: Bloomberg

- cross-border M&A 거래에서도 사모펀드의 참여 비중이 2016년 하반기 26.6%에서 2022년 상반기 70.0%까지 증가
- 이후 참여비중이 2023년 상반기 54.3% 까지 축소

[그림 10] cross-border M&A 중 사모펀드 참여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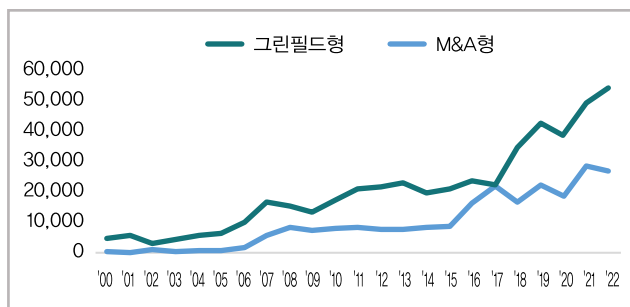
주: 미결 및 완료 기준, 자료: Bloomberg

3. 시사점

(1) Outbound M&A 지원 강화

- Outbound M&A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동시에 역기술 이전 효과(reverse knowledge spillovers)를 통한 국내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
 - 해외기업과의 M&A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
 - outbound M&A를 통해 인수한 해외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이전받는 효과가 가능
 - 기술이전을 통해 높아진 생산성을 바탕으로 국내의 재투자 확대도 기대
- 다만,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기술 및 경영권 확보를 위한 M&A형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음
 - 반면, 생산기지나 지점 설립을 위한 그린필드형 투자 비중이 2022년 기준 전체 해외투자의 66.8%를 차지
- 이처럼 국내의 해외투자는 M&A형보다 그린필드형 투자가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해외투자를 통한 역기술 이전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²⁾

[그림 11] M&A형 및 그린필드형 해외투자 (단위: 백만달러)



자료: 수출입은행

-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outbound M&A가 중요한 역할
 - 해외시장 진출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성을 확대
 - 선진국 기술기업과의 M&A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을 성장
-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해외 M&A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조직 통합 및 운영 비용의 증가로 역기술 이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M&A를 추진하는 동안 해외 인수기업 발굴, 법률 및 회계 자문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수 이후 사후관리까지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최근 해외 스타트업 기업의 거래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기업들이 outbound M&A를 추진하기에 좋은 기회
 - 특히, 미국은 연준의 금리인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SVB 파산 등으로 금융불안이 지속되면서 스타트업 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이 크게 악화되어 이들 기업의 거래가격이 크게 낮아질 전망
 - 국내기업은 적극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해외 기술기업 중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여 M&A를 추진할 필요

2) Edamura et al. (2014), "Impact of Chinese cross-border outbound M&As on firm performance: Econometric analysis using firm-level data." Stiebale & Trax (2011) "The effects of cross-border M&As on the acquirers' domestic performance: firm-level evidence." 등을 참고

(2)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기업의 성장력 제고를 위해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서 기업간 M&A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한계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이라도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성장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

□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기업활력법을 통해 정상 기업 중 과잉공급업종, 신사업진출기업, 산업위기 지역 등에 대한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중

- 사업재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변경* 및 사업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의미

* 자산(설비, 지식재산 등)·영업·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회사설립 등

** 신제품 개발, 제품 생산·판매나 원재료 사용·제공 방식의 효율화

- 승인기업은 자금지원, 절차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 받음
- 2016년 기업활력법이 시행된 이후 승인기업*이 증가하며 선제적 사업재편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임

* 승인기업: ('18) 34 → ('19) 9 → ('20) 57 → ('21) 108 → ('22) 106

□ 현재 기업활력법은 2024.8월까지만 효력이 있는 한시법으로 법적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시화할 필요

□ 동시에 산업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요구사항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

- 적용대상 범위를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하는데에 제약

- 환경변화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 범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사업재편의 신속성이 제한

- 범위를 확대할 때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

* 예를 들어, 2023년에는 적용대상을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기업으로 확대하였고, 실제 적용은 2024년부터 진행

- 이에 따라 적용대상 범위의 선정을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

- 또한,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도 까다로운 조건으로 이를 완화할 필요

(3) M&A 관련 유동성 지원

□ 고금리의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벤처스타트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 기업의 M&A 수요가 확대

□ 다만, 최근 경제불확실성으로 투자자의 보수적 투자성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M&A 투자자금이 당분간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

□ 이에 따라,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을 통한 유동성 지원정책이 필요

□ 벤처스타트업의 경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지원 자금 공급을 늘릴 필요

- M&A 딜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규모 M&A는 더욱 위축될 우려
 - 벤처스타트업의 경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브릿지 자금 공급을 늘릴 필요
- 민간 투자자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책금융이 이를 보완할 필요
 - 한 예로, 기업구조 혁신펀드, M&A벤처펀드의 규모를 늘리는 가운데 정책자금의 비중이 확대될 필요
 - 또한, 정책금융은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해 최근 국내 M&A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잡은 사모펀드와의 협업을 늘릴 필요

- 최근 첨단기술분야 기업간 M&A는 조단위 이상의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여, 정책금융의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자금 규모도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
 - 현재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각각 자기자본의 50%와 25%로 제한
 - 이에 따라 첨단기술분야 기업에 한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국내 · 외 경제지표

1. 주요국 경제성장률

(단위: %)

	2020	2021	2022	2023	2024
한국	-0.9	4.0	2.6	1.5	2.4
미국	-3.4	5.7	1.6	1.6	1.1
중국	2.2	8.1	3.2	5.2	4.5
일본	-4.5	1.6	1.7	1.3	1.0
유로존	-6.4	5.3	3.1	0.8	1.4

주 : 2023, 2024년은 IMF 전망치임

2. 주요국 환율

(단위 : 원)

	2020	2021	2022	'23. 3월	4월	5월
원/달러	1,086.3	1,188.8	1,267.3	1,303.8	1,339.9	1,322.2
원/100엔	1,054.3	1,030.2	953.2	981.4	1,000.6	945.98
원/위안	167.0	186.3	181.4	189.1	193.4	186.3
원/유로	1,338.2	1,342.3	1,355.3	1,421.5	1477.6	1419.0

주 : 기말기준

3. 주요국 정책금리

(단위: %)

	2020	2021	2022	'23. 3월	4월	5월
한국	0.50	1.00	3.25	3.50	3.50	3.50
미국	0.00~0.25	0.00~0.25	4.25~4.50	4.75~5.00	4.75~5.00	5.00~5.25
중국	3.85	3.85	4.35	4.35	4.35	4.35
일본	-0.10	-0.10	-0.10	-0.10	-0.10	-0.10
유로존	0.00	0.00	2.50	3.50	3.50	3.75

주 : 기말기준

4. 주요 원자재 가격

(단위 : USD/bbl, p)

	2020	2021	2022	'23. 3월	4월	5월
국제유가	51.1	77.1	78.8	78.08	79.73	72.25
CRB 선물지수	167.8	232.4	277.8	264.4	268.2	255.5

주1)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2) CRB 선물지수는 천연가스 · 금 · 구리 · 니켈 · 옥수수 · 밀 등 주요 원자재 선물가격 평균하여 산출